

DBS 은행의 디지털 서비스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정은 (jelee@kdb.co.kr)

- ◆ 싱가포르 DBS 은행은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은행으로 평가받으며,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출시
- ◆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진출 확대 및 자산관리 분야를 강화한 점이 특징
- ◆ 탄소배출권 플랫폼 설립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며 디지털 혁신을 추진

□ 싱가포르 DBS 은행(이하 DBS)은 전행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세계적인 디지털 은행으로 평가

< 참고 : DBS 은행 개요 >

- DBS 은행은 '68년 설립된 싱가포르 대표 금융기관으로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재무부가 테마섹을 통해 동기관을 간접 소유
 - 지주회사 DBSH(DBS Group Holdings)가 DBS 은행의 지분을 100% 가지고 있으며, 싱가포르 국영 기업인 테마섹이 DBSH 지분을 30% 보유

- '21년 매출 비중은 기업금융 42%, 소매금융·자산관리 37%, 자금운용 11% 순

- DBS는 피유시 굽타 CEO 취임('09년) 이후, “고객의 은행 업무를 즐겁게(Making Banking Joyful)”라는 비전을 발표하며 전행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진
- '21년 EUROMONEY로부터 세계 최고의 디지털은행으로 선정되었으며, '21년 Global Finance로부터 Best Private Bank Use of Technology로 선정

□ 해외시장 진출 및 자산관리 분야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점이 중요 특징

-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모바일은행 서비스 및 무역금융 플랫폼 등을 확충해 해외영업 강화
 - 해외 소매금융시장 공략을 위해 '16년 인도를 시작으로, '17년 인도네시아, '20년 홍콩에서 모바일은행 서비스인 digibank*를 출시
 - * 모바일을 통해 바이오인증, AI 등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, 예금 서비스, 자금운용 서비스 등을 제공

- 모바일은행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로 오프라인 점포 대비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고객 유치를 추진
 - '22년중 싱가포르·홍콩·중국·인도·인도네시아의 5개국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 무역금융 플랫폼 출시 계획
- DBS는 고성장중인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하고자 AI기반 자산관리 솔루션 및 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중
- '21년 자산관리 수수료는 17.9억SGD로 '20년 대비 19% 증가하는 등 자산관리 부문 성장이 가시적
 - AI모델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인 NAV Planner는 재무 및 저축 계획 수립, 투자 자문 등을 지원하며 digibank App을 통해 이용 가능
 -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서비스인 digiPortfolio*는 최소예산금액이 적고 저렴한 수수료로 접근성이 높아 동서비스에 대한 Z세대 고객의 수요가 증가
- * 모바일을 통한 맞춤형 투자 서비스로 알고리즘을 이용해 리스크관리 및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최소 예산금액은 100SGD(약 십만원), 관리비용은 연간 0.25%~0.75% 수준

NAV Planner 지원 내용

구분	내용
소비 관리	소득·지출·자산 내역 분석 및 소비습관 개선 방안 도출
투자 자문	투자위험 성향 등을 반영한 투자 목표별 솔루션 제공
재무 계획 수립	미래 현금흐름 시각화를 통한 은퇴자금 등의 원스톱 재무 계획 지원

자료 : DBS 홈페이지 등

□ 탄소배출 거래 분야 등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디지털 혁신 주도

- '21년 탄소배출권 거래 디지털 플랫폼 CIX*(Climate Impact X) 설립
- * DBS 은행의 자회사인 DBS Finnovation가 지분 23% 보유
 - CIX는 DBS, 싱가포르거래소, 스탠다드차타드, 테마섹홀딩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로 기업들은 동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의 탄소배출권을 비교하여 거래 가능
- CIX의 경우 인공위성을 통한 모니터링*, 머신러닝 및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의 투명성, 효율성 및 신뢰를 제고
- * 감사 프로세스 통과 및 제3자 독립기관과 협업하여 배출 감소 활동이 검증될 경우 탄소배출권 발행 가능